

SK, 생산성 끝지 “매출1위 무색”

2002년 정유기업 경영실적 비교 … LG정유는 평균연봉 6200만원

정유업계 부동의 1위 SK가 1인당 평균 생산성 면에서는 정유업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02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국내 정유4사 중 매출액과 생산량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의 직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6억8000만원으로 정유업계 2위인 LG-Caltex정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또 1인당 매출액 차이가 크에도 불구하고 1인 연평균 급여액은 LG정유 대비 6% 정도의 차이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의 2002년 매출액은 13조4000억원,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수는 5001명으로 직원 1인당 매출액은 26억8000만원이었다. 반면, LG정유의 1인당 매출액은 40억2000만원으로 정유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2002년 LG정유의 매출액은 10조7000억원, 직원수는 2659명이었다.

SK와 LG정유에 이어 매출액 기준 정유업계 3위인 S-Oil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은 31억1000만원, 4위 현대 Oil-Bank는 3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기준 비교로 SK의 1인당 생산성이 다른 기업에 한참 뒤지는 수준이다.

한편, 복리후생비 등 간접인건비를 포함한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LG정유가 6198만원, SK가 5814만원으로 380만원 정도만 차이 났다. S-Oil과 현대Oil-Bank의 연평균 급여는 각각 5428만원과 4771만원이었다.

정유기업 1인당 매출 및 평균급여 비교(2002)

(단위: 만원)

구 분	1인당 매출액	1인당 급여액
S K	268,000	5,814
LG-Caltex정유	402,000	6,198
S-Oil	311,000	5,428
현대Oil-Bank	334,000	4,771

자료) 금융감독원

SK 관계자는 다른 정유기업과 사업 분야가 조금씩 달라 단순비교로 1인당 생산성을 따지는 것은 무리라면서 신약 개발과 OK캐쉬백, 엔트랙과 내트릭 등 신규 사업 분야 400명과 연구개발 300명 정도는 다른 기업에는 없는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SK의 방만한 인력관리는 SK 전신인 유공 시절부터 내려온 잘못된 유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K는 1980년대 후반 설비증설 과정에서 한해 수백명의 인력을 선발해 왔으나 1999년 이후에는 생산직 신규 인원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고, 신규사업 분야가 포함된 관리직은 수십명 정도만 뽑아왔다.

<Chemical Journal 2003/08/19>